

# 삼성전자, HBM 경쟁 뒤쳐지자… 기관·외인 대규모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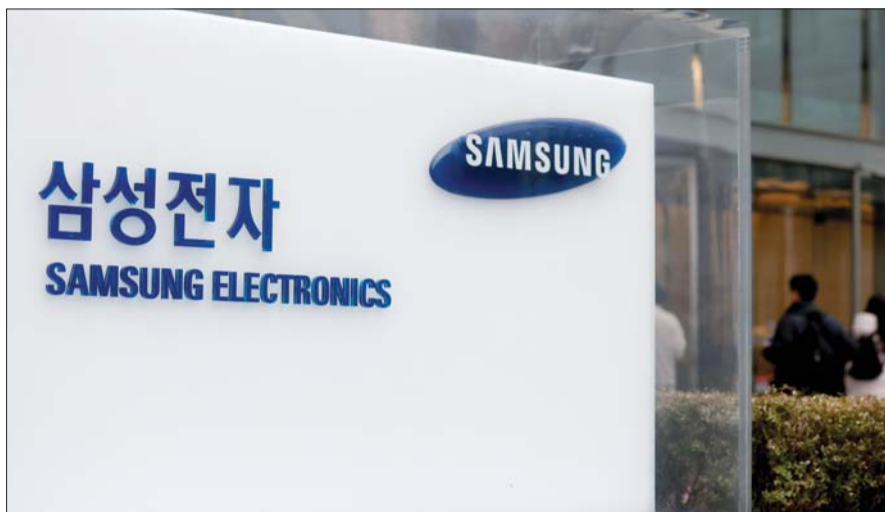
(고대역폭메모리)

올해 삼성전자 주가 6.62% 하락  
증권가, 10만전자 기대감 아직 유효  
SK하이닉스, 이달에만 10% 급등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 약 50%

반도체주 훈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소외되면서 SK하이닉스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방압력이 자극된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각각 1조 8681억원, 2조 1353억원씩 사들였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들어 6.62% 하락했다.

기관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4조 1314억원 순매도하면서, 동일 기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총합을 넘겼다. 더불어 SK하이닉스도 2번째로



/삼성전자

높은 금액을 순매도하면서 기관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해당 기간 순매도 금액은 1조 53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꺾길을 걷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21.48%, 이달에만 10.05% 급등하면서 최근 신고가를 연속으로 갈아치우기

도 했다. 특히 외국인 비율은 54.35%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SK하이닉스에 몰린 것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달에만 SK하이닉스를 벌써 약 5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이는 동일 기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2위인 현대차(2286억원)의 2배를 뛰어넘는 규모이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반도체주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그 수혜가 옮겨지고 있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8일에도 전 장보다 4.24% 상승한 17만 19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동일 기간 외국인 순매도 상위 1위를 기록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올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이달에만 삼성전자를 3963억원 팔아치우면서 손절하고 있다. 반도체주의 훈풍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기관 투자자들과 더불어 외국인들까지 삼성전자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개인은 3월에도 삼성전자를 2254억원 사들이면서 높은 선호를 유지했다.

증권가에서는 AI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선두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뒤쳐진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상당히 앞서 있음을 체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랠리와 연관된 제품은 HBM”이라며 “이 부문에서만은 ‘세계 1위’ AI 반도체사 엔비디아와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앞서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10만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평균 목표주가 역시 9만 4130원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은 10만 5000원을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예상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정책 모멘텀과 AI 랠리의 최대 피해자”라며 “단기간 내 반도체 업황의 추가 개선이나 파운드리, HBM 혁신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과도하게 부진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국내증시, 물가지표 주목… “연준 통화정책 방향성 가늠”

코스피, 전주비 37.99포인트 상승  
시장 전망치, 전월 상승률과 동일  
오름폭 둔화 이전보다 경직성 떨 것

이번주 국내 증시는 3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확인되는 물가지표 등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한 주 앞두고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를 통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2642.36) 대비 37.99포인트(1.43%) 상승한 268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내 은행, 자동차, 상사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의 주가 상승세는 지속됐다. 저PBR 업종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에 실망한 매물이 출회되는 듯했지만 외국인을 비롯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코스피가 전 거래일(2647.62)보다 32.73포인트(1.24%) 오른 2680.35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3.37)보다 9.81포인트(1.14%) 상승한 873.18,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0.9원)보다 11.1원 내린 1319.8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358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30억원과 399억원을 순매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00~2720선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2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등 변동성을 높이는 굵직한 경제 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월 CPI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2일

저녁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전망치는 전년 대비 3.1% 상승으로 전월 상승률과 동일하다. 근원 CPI는 전월(3.9%)보다 낮아진 3.7%로 예상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CPI와 PPI, 기대인플레이션 결과가 동계(12~2월)라는 계절성을 반영하면 오름폭 둔화가 이전보다 경직성을 떨 것”이라며 “2월 CPI의 경우 헤드라인은 전월 수준, 근원(에너지·식품류 제외)은 둔화

하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6월로 후퇴했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동성 심화시,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의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일각에선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의 대표적 성장주 펀드회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지난 7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엔비디아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AI 관련 특정 종목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버블 우려가 나온다”며 “혁신기술의 실제 발전 속도보다 금융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미래에셋자산운용

1년 은행 CD 금리 ETF

1개월간 금리형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 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1개월간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1년은 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개월간 수익률(NAV, 연환산 기준) 3.6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원관희 기자

###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반도체 목표전환 펀드

1호·2호 모집액 1000억 돌파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키움 글로벌 반도체 Smart Investor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 1호와 2호 모집금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정해진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한 단위형 상품으로, 1호와 2호 각각 단 1주일만에 513억, 59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급등세 속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 11년 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주가 ‘들쭉’

### metro 관심종목

#### 파라다이스

내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 예정  
저변확대로 기관·외인 관심 제고

최근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들쭉이고 있다. 이는 11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 이전을 다시 들고나온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전 상장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주가 전망

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지난 7일 5.04% 상승한 1만 3550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전일 대비 2.51% 하락한 1만 32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파라다이스 주가가 널뛰기한 것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라다이스는 오는 22일 정기주총회 결의 후 4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6월까지 상장 예비 심사

가 승인된다면 이르면 7월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종에서 강원랜드 다음으로 영업이익이 큰 업체지만 코스닥에서 거래돼 왔다.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지난해 매출은 9942억원으로 전년보다 69.2% 늘었고, 영업이익은 1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9.9%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는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 및 수급이 원활한 코스피 시장 이전을 통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동행이 가능한 대형 기관·연금·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킨다는 구상이다.

파라다이스의 코스피 이전 추진에 대해 증권가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파라다이스는 최근 신용등급을 높이고, 기업 설명(IR) 부서를 재정비하며 본격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뒀다”며 “향후 자사주 매입, 배당 성향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원관희 기자